

[ TV ]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and KBC/S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라디오 주 청취층은 30대 이상 고소득자”

방송공사 '2007 미디어인덱스' 분석... 40대 가장 많아

국민의 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디오 청취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고소득 여인 주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2007 미디어인덱스'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청취한 비율은 53.5%에 달하며, 주 청취층인 30대 이상은 60.2%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인덱스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도시에서 거주하는 만 11~64세 연령대의 8천400명을 상대로 연간 세 차례씩 면접방식을 통해 도출해 수치화한 지표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행정/경영/관리직)의 66%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듣고 있으며, 블루칼라(판매/서비스/기능직)의 경우 59%, 주부 48.2%, 학생의 34.4%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디오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40대(50%)였으며 그 다음은 30대(48%), 50대 이상(36%), 20대(31%), 10대(17%) 순이었다. 한편 하루 평균 라디오 청취 시간은 1시간48분 정도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MBC 드라마 '흔들리지마' 14일 첫선

'그래도 좋아' 후속... 홍은희·김남진 출연

홍은희(사진)·김남진·김남진 등이 주연을 맡은 재혼가정 소재 아침드라마 MBC TV '흔들리지마'(극본 이흥구, 연출 백홍민)가 '그래도 좋아'의 후속으로 14일부터 전파를 탄다. 드라마는 재혼가정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를 비롯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애정사건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다룬다. 홍은희는 화장품 홍보 마케팅팀장 이수현 역으로 출연한다. 당차고 매력적인 스타일의 현대 여성으로 성공을 꿈꾸는 완벽주의자다. 그는 재벌가 아들인 강필(김남진)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인 이은희(임채무)와 차영미(선우은숙)가 재혼한 관계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이수현의 의붓동생 박민정 역으로 김남진이 출연한다. 문제는 강필이 박민정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불거진다. 결국 강필과 이수현은 파혼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이수현은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연합뉴스



케이블/위성 가이드

Table with columns for Cable/Satellite guides including channels like CMB, KCTV, and LIVING TV, listing program titles and times.

Radio 산책

Table with columns for radio stations like TBN, CBS, PBC, and BBS, listing program titles and frequencie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 about discounts and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오피스텔 분양공고' (Office Apartment Sale Announcement) with details on pric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전통 제례 음식' (Traditional Ritual Food) featuring a variety of traditional Korean dish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vider.